

영안 (열왕기하 2:15-25)

원죄를 당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 하나였다. 이 언약으로 원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너무 자주 들은 말이라 예사로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면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언약이 있는 왜 싸워? 그리고 늘 이런 저런 이유로 불안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언약이 있는데 왜 불안해 - 이 언약은 원죄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인데... 요셉은 형들에게 한 번 말했다가 당한 이후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난 후에도 말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언약이 있는데 말할 것이 뭐 있냐. 언약이 성취되면 되지 ...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언약이 있는데 너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언약이 평생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바란다.

1. 영안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흑시 시체가 어디 떨어져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시체를 찾겠다는 것이다. 열왕기하 2: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듯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의 승천장면이다. 성경에는 몇군데 보면 살아 있는 몸이 올라간 기록들이 있다. 나중에 휴거가 될 때 휴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하여 표본으로 보여준 것일수도 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에도 나타난 것이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도 어느날 사라졌다. 시체 아직도 못 찾았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해 올라갈 때 겹옷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잡았다. 그것으로 요단강물을 치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이다. 겹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때에도 이렇게 했다. 그냥 따라오라가 아니었다. 그냥 따라오라 해도 따라왔겠지만 엘리야가 자기의 겹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다. 엘리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열두겨리의 소를 던져두고 즉시 따라갔다. 그것은 너가 나의 후계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래서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의 영감으로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절을 했다. 우리 선생님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 16절에 보면 용감한자 50명이 있는데, 그들이 엘리야를 찾나는 것이다. 흑시 바람 타고 가다가 어느 골짜기나 산에 던져졌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아주 하나님을 걱정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가지 말라는 것이다. 가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해서 어쩔수 없이 보냈다. 그들이 삼일을 찾아도 못 찾았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의 이야기이다. 읽어보면 그냥 넘어갈만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자들은 모른다. 못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아는 엘리사가 가지 말라 하면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었다. 모르니까. 더 용감해진 것이다. 오히려 강청하고 숫자로 밀고 들어온 것이다. 용감한것도 문제지만, 신앙에서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못 본 것이다. 결국 엘리사

가 졌다.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니, 가봐라 한 것이다. 가봤더니 없었고, 아직도 본 사람 없다. 그런데 결국은 필요없는 짓을 한 것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니 와서 절한 것이다. 존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스스로 한번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가. 이 이야기는 삼일만에 끝났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눈이 안 열리면 평생 갈 수 있다. 그 제자들이 과연 그 이후에도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절한것처럼 엘리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었을까? 결국은 엘리사가 옳았다. 그들은 반드시 엘리사의 말씀을 선택했어야 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눈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것은 영적 문제이다. 그러면 눈이 열려있어야 보인다. 영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사실은 영적인 수준차이이다. 이런 표현은 기분이 좋은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 수준차이가 있다. 영안이 없으면 몸이 괴롭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힘들다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쓸데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눈이 없기 때문이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계속 하게 된다. 어떤 때는 틀린 결정을 아주 용감하게 할 때도 있다. 더 심한 것은 틀린 결정을 하고도 모른다. 어떤 때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먼 훗날 눈이 열렸을때에는 그때 그랬지 하면서 웃고 넘어간다. 눈이 이처럼 중요하다. 나중에 깨달으면 좋은데, 시간은 지나갔다. 바둑 18급 십만명이 모여도 바둑 1단하고 바둑 두면 10만명이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 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 싸움 이유도 없는데 싸움이 일어난다. 다른 길을 한동안 가게 된다. 눈이 열리므로 우리중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 바란다. 어디서 이런 눈을 얻는가? 이 눈은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의 정도, 거기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이 눈이 걸려 있다.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인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가 내게는 뭔가? 이 두가지에 의해 내 영안이 결정된다. 다시 한번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소금언약

엘리사가 소금으로 그 지역의 물을 고쳐버렸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히 할수 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물을 바꿨다는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다. 그런데 소금으로 했는데, 사실은 잘 읽어 보면 말씀으로 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21절에 소금을 던지면서 한 일이 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거라고 하면서 소금을 던졌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잘 떨어지는데, 그 이후로 없어졌다. 당연히 소금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했다. 그리스도가 소금이므로 우리가 소금인 것이다. 어떻게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소금이 되겠냐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안된다. 레위기 2:13절에 너의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다. 소제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말라고 하였다. 민수기 18:19절에도 영원한 소금언약이라고 하였다. 소금은 절대로 스스로 썩지 않는다. 영원히 안 썩는다. 그리고 소금 안에 넣었다면 절대 썩지 않는다. 그리고 소금은 양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참 놀라운 일이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다보다 100미터 이상 더 아래에 있다.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옆에 있는 산들 때문에 지금은 땅이 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이 있다. 그 소금이 몇천년, 몇

만년 되었을 것인데, 그 소금이 양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리스도 그 말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유일한 진짜 소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한 세상은 썩지 않는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한국에는 좌파가 많아서 다른 어느나라보다 교회를 많이 비판하는 것 같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좌파는 안된다. 왜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죽는 것이다. 모른다. 자기들은. 왜냐면 영안이 없기 때문이다. 50명이 이겼다. 힘으로는. 교회는 만일 한국에 없어진다면 이겼다고 난리 날 것이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까? 자기들이 먼저 목 잘린다. 그게 영안이다. 하나님은 용서 안한다. 우리는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바닥에 두려움도 깔고 있어야 한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많이 있다. 겁내는것과는 다르다. 인간이 겁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일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치유한다. 언약이 되고 눈이 열리기 바란다. 이 눈이 내 맘대로 안되서 답답할수 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답은 그리스도이다. 죽어라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누르고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안되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눈이 열려야 영동한 짓을 안 한다. 여기에서 눈이 열려야 용감한 자가 안된다.

3. 하나님의 종, 엘리사

이 이야기는 약간 충격적이다.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으니 베델에 가서 할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읍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다.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였던가보다. 그런데 24절에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인 것이다. 참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는 사실 많이 봐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선지자가 아이들을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거기에 42명이 암곰에게 죽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냥 가버렸다. 애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것도 하나도 없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갓 세워진 전도자 엘리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비슷한 것 몇 개 봤다.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젊은 선지자이야기. 그리고 친구 선지자가 때리는데 안 때렸다고 해서 사자에 몰려 죽었다. 비슷한 이야기이다. 결론은 하나님은 절대 양보 안한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고 바뀌는 법도 없다. 메시지는 절대적이다. 따라가면 축복, 안 따라가면 죽는 것이다. 비슷한 메시지이다.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엘리사를 무시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이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아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것이다. 한두명도 아니고 42명이 몰살을 당했다. 오히려 선지자를 환영하고 기도받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보통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머리라고 조롱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야 할 시점이었다. 엘리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중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조롱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엘리사가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아주 그에게 확실한 권위와 리

더십을 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엘리사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면 얼마나 떨어뜨렸을가 싶기도 하다. 대머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 리더십이 뒤집어질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이들 부모가 뒤집어 쳐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나 할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가고, 끝까지 가고, 방해하는 자들은 자르신다. 무섭다. 때로는 무섭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이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읽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 간절함에 눈이 열린 사람. 이런 이야기를 읽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대들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눈이 까막눈이다.

하나님에게는 이유 없는 일이 없다. 그리고 우연도 없다. 모든 것이 절대 계획이다. 안 바뀐다. 하나도. 모든 것이 창세전에 결정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게 없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이다. 무슨 토를 달면 그것은 50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원한다. 이스라엘에 이상승배가 만연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에 남겨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이유가 무엇이든 방해한다면 아이들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저의 혼자 생각인데, 이 아이들이 지옥갔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확실히는 모른다. 너무나 애석한 일이지만 중대한 메시지이다. 이것을 잡아야 한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응답 안된다고 불평하는가? 그 사람은 눈이 자기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 잡혀 있어서 그렇다. 만일 영적인 것에 잡혀 있는 사람은 응답 안되도 그런 소리는 안 나온다. 물론 우리는 응답 많이 필요하다. 없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러나 힘이 없어지고 응답을 위해 기도해도 그 눈은 항상 하나님의 눈에 맞춰진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를 예사로 생각하면 내게 손해가 된다. 우리를 이끌어 가는 분이 있다. 누구나 있다. 나에게도 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존중한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의 말을 따라가야 한다. 존경은 하는데 말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50명인 것이다. 당신은 엘리야를 대신한 선생님이라고 와서 절은 하면서 말을 듣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면 안된다. 그러지 말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 엘리사가 완벽한 인간이었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별개의 문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을 듣는 것을 별개로 하면 안된다.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몸과 시간과 경계가 고생을 하지 않는다. 쓸데 없는 영동한 쪽을 자신있게 선택하는 그런 일이 어서는 안된다. 영안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영안을 가지면 조금 더 멀리보게 되는데, 끝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갈 때가 다 되었다는 소리도 하였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소금언약이 있어야 한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했다. 3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담기기 바라고, 평생 살아갈 중요한 영적 양식이 되기 바란다.